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4.154

A Meta-theoretical Review and Altern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Climate Crisis: Planetary Politics

Yeonsu Lee & Yoochul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theory and to critically review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mainstream theor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under the transnational crisis such as climate crisis. This article reviews existing theories including constructivism through a meta-theoretical approach and analyses ontological transition. This study seeks an alternative theory to overcome positivist mainstream theories, constructivism and the state-centric approach. This study suggests planetary politics as an alternative. The Anthropocene itself is valuable in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of its ontological transition. However, its colonial limitations are a challenge.

Key Words: IR, Climate Crisis, Constructivism, Planetary Politics, Anthropocene

기후위기 국제정치에 대한 메타 이론적 검토와 대안 이론 논의: 행성정치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

이 연 수** · 이 유 철***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기후위기 등 초국가적 위기 하 기존 전통적인 주류 국제정치 이론의 유의성과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의 단초를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메타 이론적 접근을 통해 구성주의를 포함한 기존 이론들의 인식론 중심적 이론체계를 재구성하고, 존재론적 전환을 가늠해 보았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국가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와 존재론적 전환을 통한 초국가적 위기에 조응하는 대안 이론을 모색하는 것으로, 실증주의 주류 이론들과 그 대안으로 부상한 구성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행성정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초국가적 위기를 인류와 행성 위기로 상정시킨 존재론적 전환으로서의 인류세는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식민주의적 한계는 극복과제이다.

핵심어: 국제정치학, 기후위기, 구성주의, 행성정치, 인류세

□ 접수일: 2022년 7월 11일, 수정일: 2022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KDA-1250005).
** 주저자, 영국 리즈대학교 박사과정
(First Author, Doctoral Course, Univ. of Leeds, UK, Email: yeonsulee.1202@gmail.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 연구원, 정치학 박사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Inha Univ., Email: yclee@inha.ac.kr)

www.kci.go.kr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 시대에 도전 받고 있는 전통적인 주권국가 중심체제적 인식론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며, 비전통 인간안보와 탈근대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정치의 존재론-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메타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대안적 이론 틀로서 행성정치(planetary politics)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유럽 30년 전쟁의 처참한 결과는 베스트팔렌 주권국가체제라는 국제사회의 문명의 기준을 세운다(Suganami, 2002). 국가들 간 전쟁에서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이 하나의 문명의 기준이 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공존의 국제정치학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더욱 성장한다(Carr, 1946; Morgenthau, 1948; Waltz, 1979). 즉, 국제정치학은 '또 다른 세계대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발전해 왔으며, 국제정치학 이론들 또한 철저하게 근대 주권국가체제에 기반한 국가 중심적 전통안보에만 주목한 것이다(Bull, 1966; Keohane, 1994; Wight, 1977).

그러나 탈냉전으로 인해 견고한 전통적 안보 중심의 질서를 유지, 확대시켜 온 양극체제(bi-polar)가 무너지고,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국제분업체제가 견고해지는 등 국제사회의 질서가 변화하면서 '전쟁'을 예방하는 학문으로서의 정체성도 또 다른 국면을 마주한다(Buzan, 1991; Kaldor, 2007). 특히, 지난 3년 동안 세계가 마주한 경험, 즉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전통적 국제정치관의 급진적 전회(turn)를 고려하게 만들었다(Bong et al., 2020; Gómez, 2022). 질병의 초국가적 유행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대응이 요구됐으며, 베스트팔렌 전통은 팬데믹 대응과 모순적 충돌을 반복했다(Bialasiewicz & Eckes, 2021; Florey, 2021; Harrington, 2021).

세계화 질서하 정부, 비정부 주체들 간 이동과 교류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나, 그 토대는 여전히 주권국가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나타난 일련의 상황들은 국제정치관에 대한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로 대변되는 팬데믹의 경험은 질병의 문제를 '행성의 위기'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분기점'으로서 '포스트 팬데믹(post-pandemic) 국제사회'와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이에 관한 연구는 환경 아젠다의 '초국가성'에 대한 주목은 자연스레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제도, 행위자, 지식과 규범에 근거한 초국가적 대처방안 등에 대한 고민(Dalby, 2016)과 같이 근대주권국가체제에 근거한 접근에서 벗어나 존재론적 전환이 전제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이에 본고는 일부는 존재론적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기후위기를 '행성문제'로 인식하는 시도이다(Bauman, 2014). 문제 해결적 접근(problem-solving approach), 개발도상국-선진국, 남반구-북반구 등 국가 혹은 지역 중심적 관점에서의 책임론적 이해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문제로 인식하며 국가적 구분의 무의미성에 대한 주장이다(Kurki, 2020). 즉, 국제정치에 대한 존재론-인식론적 근원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본고는 앞선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 그리고 이들을 중재하고자 한 구성주의 이론이 지닌 존재론-인식론적 한계를 메타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각각의 이론들이 가진 안보개념 이해의 간극은 이를 추적하는 주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검토에 기반하여 대안을 검토, 특히 존재론적 전환으로서의 행성정치와 인류세의 실제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Ⅱ. 새롭게 마주한 현실과 전통적 이론 간 괴리: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수립된 근대 주권체제를 전제한 국제정치이론을 대표하는 두 이론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대전제로서 국제체제가 무정부적이고 경쟁적이며 이런 환경에서 국가를 생존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다(Nye, 1988; Waltz, 1979). 그리고 이는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 자조적(self-help) 행위자인 합리적 국가에 기반한 생존을 추구하는 군사안보 중심의 전통적 안보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Hough et al., 2015). 결국, 두 이론 모두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한 낙관과 비관, 그리고 각각에 기반한 방법론적(세력균형론, 민주평화론, 상호의존론, 동맹이론 등) 차이에도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생존과 자조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Grieco, 1988: 485).

이와 같은 인식론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국제체제의 '현상유지'의 지향 및 작동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안보 위협이 결국 안정적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는 것도 그 이유다(Cox, 1981; Gilpin, 1988). 나아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전통적 안보 관념은 대상(국가와 비국가 주체)에 따른 범위의 확장은 있을 수 있으나, 생존이라는 목표 하에 그 내용이 심화될 수 없다(Hufbauer et al., 1986). 즉, 주권국가체제 안에 갇힌 국가 중심적 인식론은 비전통적 안보 요인들인 환경 파괴, 세계적 감염병, 테러리즘 등 다양

www.kci.go.kr

한 초국가-초국경적 문제를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적 접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안보 개념의 확대로 인해 환경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영역이자 하위정치 영역에 포함되는 분야는 잠재적인 위협을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로 정의될 수 있지만, 사실상 국제사회 구성국들 전반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등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존적 위협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변화들, 예컨대 기후난민 문제를 비롯한 최근 경험한 팬데믹 사태 등은 이것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생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 내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 거주 분포와 식량, 에너지에도 큰 영향을 미쳐 문명 자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Buzan et al., 1998). 즉, 환경문제의 영향은 국가들의 생존 토대 중 하나인 경제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선 두 주류적 관점의 인식론은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기후위기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과거 우리가 경험한 일국적 차원이 아닌 초국적 차원의 위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이태동, 2022). 따라서, 결국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국제정치학에서 국가 중심적 전통에 대한 한계를 의미하고, 이를 넘어서는 인식론을 통해 환경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Ⅲ. 탈냉전기 국제체제의 변화와 대안적 인식론: 구성주의적 접근

탈냉전 체제, 즉 미국과 소련의 양극적 국제질서의 붕괴는 국가 간 문제보다 국가 간 개인, 또는 집단, 혹은 개인/집단 간 문제인 국가 층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Fukuda-Parr & Messineo, 2012). 기존 초강대국들 간 양극적 대결에서 절대적 목표였던 생존과 이를 위한 군사 안보 중심적 국제사회에 의해 억눌려 왔던 각국 내부와 주변국가와의 종교, 민족, 인종 갈등과 분쟁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박한규, 2007). 나아가 세계화는 전통적 안보연구의 핵심인 주권과 영토 개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고, 동시에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자원, 자본, 인간의 초국경적 교류의 일반화로 더욱 고착화된 수탈적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은 국가들 간 경제 양극화뿐만 아니라 일국 내 빈부격차 심화와 이로 인한 빈곤, 질병, 난민, 인권 유린 등의 문제가 다시 국제적 수준의 위

www.kci.go.kr

협으로 등장시킨다(Battersby & Siracusa, 2009). 즉 실존적 위협이 다변화된 국제사회에서 안보연구는 국가 중심적 안보관의 효용성 한계 다다른 것이다.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위협, 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한 안보이론의 필요성은 이런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성주의 이론은 전통적 이론과 현실 간 간극을 이어주며, 실증적-탈실증적 요인에 따른 다양한 국제문제들을 포착해 낸다(Buzan et al., 1998: 21-48).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는 관념, 규범 등 추상적인 변수의 설명력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위협을 정의하고 다양한 안보 문제를 상정해 낸다.

구성주의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근거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진다(Katzenstein et al., 1996; Wendt, 1999: 35-38). 이는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 합리적 국가들의 국익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보적 갈등을 국가들 간 관계성을 통한 제어 가능성으로도 나아간다(Wendt, 1999: 315-316). 구성주의는 안보딜레마의 원인을 각국의 정체성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인식의 간극으로 설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Buzan, 1991: 173-175).

한편, 구성주의적 관점에 있어 국제 규범적 틀의 작동방식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 관련국들이 국익과 관계없이 개입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즉, 구성주의는 안보를 “하이픈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정립시키면서 그 개념의 확장을 이룩해 낸다(Buzan et al., 1998).

이는 안보의 대상의 확장시킨다. 국가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문제를 안보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해당 문제를 안보 아젠다화 되기 때문이다(Buzan & Waever, 2003). 위협을 실체적으로 인식했던 현실주의적 관점을 해체시키고, 그 대상을 다양화 시키는 한편, 담론화(securitization) 시켜 안보적 긴장을 제어 하에 위치시킨다(Buzan & Waever, 2003: 255-259). 즉 실존적 위협에 대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의 대상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생존을 위협받고 긴급한 보호와 필요성을 요구할 때 이슈화 과정을 거쳐 안보 문제로 격상된다고 본 것이다(조원선, 2017). 다시 말해, 이들에게 안보란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실재하는 어떤 조건이 아닌 담론을 통해 위협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광호 외, 2019: 101).

구성주의는 국가가 자국 이익 이외 다양한 이슈에 국제규범에 따라 국가의 집단 안보의식을 형성하는 점을 주목하기에 국가와 군사 중심적인 안보 개념을 확장하는 데 기여를 했다. 국제정치 작동기제로서 국제규범을 인식하는 구성주의는 국제규범을 국가 행위를 이해하는 분석단위로 보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존중되는 규범이 국가 행위의 많은 영향을 미친

www.kci.go.kr

다고 본다(Buzan, 1991: 98-99). 즉 국가 중심적 안보관을 넘어서 개인과 국가 이외 집단으로 안보의 대상을 확장하여 빈곤, 테러리즘, 환경 등 신생 안보 아젠다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역시 중요한 안보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구성주의의 안보 인식이 안보 대상의 확장을 통해 그동안 주변화 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끌어내고, 각각이 이를 경쟁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점을 보여준다.

Ⅳ 기후위기와 국제정치학

그러나 앞선 대안이 곧 기후위기 문제의 해소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권국가 중심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는 개별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 즉, 현재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바다에 잠기는 나라, 투발루와 한국 혹은 그밖에 북반구(Global North)가 인식하는 기후위기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혹은 환경 아젠다의 영역에 대한 대응은 일국, 개별적 차원의 대응만으로 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후위기 문제의 영향은 초국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 또한 초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관계학의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장에서는 문제의 극복 대안으로 제시되는 행성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기후위기와 행성정치

국가 중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 역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난민, 국경 변화, 식량 생산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이태동, 2022). 즉,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의 문제는 인간 삶의 양식과 국가 간 관계를 지속적이고 전면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주권, 경제, 군사안보 등 국익과 직결된 의제에서 나타난 '탈'정치적 아젠다, 나아가 새로운 인식론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다.

이 배경에는 각각의 국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 아젠다들이 일국적 문제로 인식되나,

www.kci.go.kr

실상 각각의 문제들은 자국의 국력으로만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결국, 이는 국가 간 문제, 국제 공동체의 문제, 국제 아젠다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국가중심적, 합리주의적 패러다임과 자연/사회 이분법적 사고, 인간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주류 국제관계학적 인식론에 기반한 이론들은 초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Pereira, 2021). 이는 행위자의 생존 안보에만 주목하고 있는 기존 주류 국제정치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이다. 주류 국제정치학의 인식론은 기후위기 아젠다를 그저 새로운 이슈이자 배경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차태서, 2021).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배경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화 되어 삶의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이분법적 관점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즉, 인간 이성 주체와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신)이라는 근대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통해 탈근대적 인식론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을 인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공간에서 그것과 인간이 상호성을 갖고 자연과 인간을 통합시켜내는 방향으로 완성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듯 국제정치 안에서 함축적인 가치와 과정, 대응책, 행위자를 지키는 실존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존 이론들이 지닌 인식론으로부터의 전환, 나아가 '지구'라는 초/탈국가 주체 상정을 통한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Hardt, 2021). 무엇보다 초국가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양자 간 협력은 어려우며, 현재 기후위기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배타적 주권에 기반한 영토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적 위기를 의미하는 기후위기는 국제관계학에 있어 존재론적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사회(국가)를 구분하는 이분법에서의 탈피하고 지구 행성으로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론적 전회(turn)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행성정치로의 존재론적 전환은 진정한 생존을 위한 매우 자연스러운 상상력이다. 그리고 '인류세' 개념은 무엇보다 존재론적 전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요한 매개가 된다. 인류세에 대한 상상력은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상상력에서 행성정치로의 전회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이 된다. 인류세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핵심인 자연/사회(인간) 이분법에서 행성 자체로의 일원화된 존재론으로 재구성시키기 때문이다(Pereira, 2021: 24). 이는 그동안 지난 인류 평화의 상징이자 근거가 된 베스트팔렌체제와 이에 기반한 사고방식과 전신세는 정립된 주권과 영토에 기반한 공고한 주권국가체제적 국제정치학(Hardt, 2021: 40)에 대한 재편을 통해 상상해내는 행성정치인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행성의 위기, 그로

www.kci.go.kr

인해 인류 중심의 국제체제와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풍요로운 환경에 미치는 주권국가들의 전통적 국익을 침해가 인류세 개념을 국제 생태학적 재앙과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의 붕괴라는 이중적인 위기 상황을 포착한 것이다(McEwan, 2021: 77). 이는 지구가 현재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구 시스템과 인간 간 상호작용과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 상황에서 인류세 담론이 갖는 중요한 의미이다.

2. 기후위기의 불평등: 행성정치와 인류세의 식민주의

그러나 이런 인류세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통합과 행성정치, 즉 주권국가에서 행성으로의 존재론적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의 낙관적 전망만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 시대, 환경 아젠다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뿐이다. 즉, 기후위기가 행성적, 초국가적 아젠다로 국제사회와 인간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국제정치 권력 중심의 불평등 착취 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류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서구 중심적이고 식민주의적 한계를 의미한다. 즉 인류세와 행성정치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구 생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글로벌 남북문제와 식민주의 역사로 인해 지속된 부정의(injustice)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를 남긴다.

탄소배출과 환경 문제는 결국 국제체제에서 소외된 국가들, 더 구체적으로 서구 식민화 과정을 통해 수탈적 체제 하에 있었던 피식민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 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Simangan, 2021: 277).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 국가들로 구분되는 국가들과 피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갖는 국제체제 내 종속적 위치는 오히려 인류세에 의해 더욱 배제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에게 인류세의 보편화는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자연의 혜택'에 대한 과세일 뿐이다. 소위 선진국으로 구분되는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욕망은 자연에 대한 대상화와 이에 근거한 자연의 자원화로 인한 착취를 통해 발전된 것이었고, 여기에서 얻은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은 인류의 공유된 것이 아닌 배타적인 것일 뿐이었다(Adamson, 2012).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후발주자들인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노동력과 자원 제공으로 동원될 뿐이었고,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불평등의 심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제1세계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유되어 착취된 자연의 결과인 기후위기를 피착취, 피식민국가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할 뿐이다.

www.kci.go.kr

결국 인류세 담론은 '진보'적 철학적 사고방식을 깊이 흔들고 성찰하게 만들었지만, 식민 지배 경험을 한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 인류세 시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결국 인간의 인간에 대한 식민지배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 대상으로 삼은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Simangan, 2019: 571). 유럽인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민화는 자연을 인간 행위에 예속화시키고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과 다름 아니었다. 그 결과, 현재 서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물의 다양성 손실 등 환경 문제는 식민지배를 받은 이들은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이자 현재 그들이 마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피식민 경험을 지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문제는 식민화된 삶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도에 기반한 착취라는 근본적 생존의 과제 앞에서 자유롭기 어렵다(McEwan, 2021: 77). 따라서 그저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피식민 경험 국가들에게 그들이 누려본 적 없는 자연에 착취로 인한 부의 축적과 그 폐해의 공동책임자로서 인류세를 부과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식민주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인류세를 논의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이상(idea)에 불과하다. 즉,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에서 인류세 논의는 현실적이고 실존적 위협이기보다 이상적이고 유럽 중심적인 담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인류세 시대의 출현은 결국 서유럽의 산업화 혁명과 식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류세 담론이 가진 인종차별과 불평등, 역사적 부정의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즉, 인류세를 비서구권적 상상력과 관점, 그리고 생태학적인 위기,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비안정성, 토지,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통해 탈식민화 하고 인류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 식민 역사에서 비롯된 역사적 부정의가 어떻게 개발 차이를 심화시키는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과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환경적 이슈와 딜레마들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후기식민주의 접근은 유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류세의 역사 유물론적 재해석과 비판적 행성정치

앞선 메타 이론적 관점에서의 기후위기 아젠다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기존 문제 해결적 접근의 환경 아젠다 논의들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유의미한 접근일 것이다. 결국 실증적 현실도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그것이 이해되고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체계화하는 관점을 모색해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유의미하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베

www.kci.go.kr

스트팔렌 체제 수립 이후, 그리고 주권국가체제가 국제사회의 하나의 기준(standard)이 된 이래 일반화된 국가주의(statism)적 국제체제 인식과 인간 이성과 자연(신)이 분리된 세계관이 형성된 근대 이후 대상화되어 온 인간 중심적 이원화된 자연관이 결국 기후위기에 있어서 주류 국제정치 이론의 무력함을 재생산해 낸다는 사실을 조명한다는 점이 더욱 그러하다. 시론적 차원에서 행성정치와 인류세는 이런 국가중심주의적 국제정치 이론과 인간-자연의 이원화된 존재론에서 '행성'이라는 유기적으로 구성된 인간-자연을 일원화시킴으로써 현재 마주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에서 도전받고 있는 기후위기를 재구성한다.

그러나 인류세 시대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서유럽의 산업화 혁명과 식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류세 담론이 가진 인종차별과 불평등, 역사적 부정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는 인류세의 실증적 접근에 더해, 이에 대한 역사 유물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세가 담지하고 있는 문제의식에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비판이론적 접근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 간의 권력과 착취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어, 인류세에 대한 비서구적 이해, 즉 인류세를 비서구권적 상상력과 관점, 그리고 생태학적인 위기,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비안정성, 토지,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통해 탈식민화 하고 인류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 식민 역사에서 비롯된 역사적 부정의가 어떻게 개발 차이를 심화시키는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과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환경적 이슈와 딜레마들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후기식민주의 접근은 유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메타 이론적 검토 위에 실증적 논의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행성의 정치에 대한 유물론적 사관의 이식은 인류세를 공동의 책임이 아닌, 자연에 대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배타적 점유의 결과임을 폭로하게 됨으로써 유의미한 진보, 비판적 행성정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Ⅴ. 결론

탈냉전기 이후 전통적 국가 중심의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론이 한계를 드러냈다. 근대 주권체제를 전제로 하는 국제정치이론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무정부적이고 경쟁적, 패권 중심적 국제체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 인간안보 영역의 아젠다

www.kci.go.kr

문제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COVID-19와 팬데믹 상황은 이런 한계를 노정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인류 보편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정치학적 존재론-인식론의 요구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전통적 국제정치이론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안보 의제에 대해 설명하며, 탈냉전 비전통 안보 영역을 개척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 아젠다 등은 인식의 확장에 더해 다자간 협력과 국가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지구 행성을 단위로 하는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한계를 나타낸다.

지구 행성 자체를 단위로 보는 초국가적 패러다임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위기에 적합하게 대응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지구와 인간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접근법인 인류세를 통해 생태학적 위기와 부정의와 불평등에 기반한 국제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주권국가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세 개념의 출현이 서구 중심적 관점에 기반에 입각한 식민주의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서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화와 식민주의적 체제하 자본 착취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인류세 담론은 '생존과 직결된 인간안보'의 논의가 아닌 이상적인 담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정치와 인류세적 접근은 기후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베스트팔렌체제에서 지구 행성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국의 이익이 우선시 될 때, 국제 협약과 국제법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행성정치는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정치학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간-자연 상호작용과 이로 인해 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다원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둔다. 지구온난화, 기후난민, 식량위기 등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지속해 온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일국적 문제가 아니며 주변 인접국의 환경과 해당 지역 내 사회경제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국가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주권국가 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지구 생태계 자체를 고려하는 행성정치와 같은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한 구성주의에 대한 검토를 하며 더 나아가 주권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세 이론과 다른 지구 행성을 분석단위로 하는 행성정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탈냉전과 세계화 이후

www.kci.go.kr

변화한 국제체제와 이로 인해 나타난 초국가적 문제들을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주권국가체제 중심적 국제정치에서 탈피하여야만 국제 보건위기, 빈곤, 테러리즘, 내전, 기후위기 등 다국적이고 초국가적인 문제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확인하여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세 시대의 지구 행성 생존 자체를 위협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국제정치학 내 패러다임인 행성정치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초국가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시대 속 국제정치학 내 인식론적 전환과 행성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본 논문을 기반으로 국가 중심적 국제정치학 이론이 정립된 전신세와 확연히 다른 인류세 속 국제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박한규(2007),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3): 984-1003.

이광호·이승규·김호길(2019), “사이버 위협의 안보화 동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논의”, 『융합보안논문지』, 19(5): 99-105.

이태동(2022), “기후변화와 국제정치: 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 어젠다”, 『국제정치논총』, 62(1): 271-303.

조원선(2017), “국가 사이버안보 담론과 안보화 이론: 한국의 사이버안보 상황 분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116: 145-177.

차태서(2021), “포스트휴먼 시대 행성 정치학의 모색: 코로나 19/기후변화 비상사태와 인류세의 정치”, 『국제정치연구』, 24(4): 31-65.

Adamson, G. C. D.(2012), “‘The languor of the hot weather’: Everyday perspectives on weather and climate in colonial Bombay, 1819-1828”,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8(2): 143-154, <https://doi.org/10.1016/j.jhg.2011.11.018>.

Battersby, P. & M. S. Joseph(2009), 『Globalization and human security』, Colorado: Rowman & Littlefield.

Bauman, W. A.(2014), 『Religion and ecology: Developing a planetary eth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ialasiewicz, L. & C. Eckes(2021), “‘Individual sovereignty’ in pandemic times-A contradiction in terms?”, 『Political Geography』, 85(2021): 102277, <doi: 10.1016/j.polgeo.2020.102277>.

Bong, C. L., Brasher, C., Chikumba, E., McDougall, R., Mellin-Olsen, J., & A. Enright(2020), “The COVID-19 pandemic: effects o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Anesth Analg.』. <doi:10.1213/ANE.0000000000004846>.

Bull, H.(1966), “The Grotian Concep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Diplomatic investigations: Essay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Allen and Unwin.

Buzan, B.(1991), 『People, States, and Fear: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Lynne Reinner.

www.kci.go.kr

Buzan, B. & O. Waever(2003),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mbl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zan, B., Wæver, O., & J. de Wilde(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Carr, E. H.(1946),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Cox, R.(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2): 126-155.

Dalby, S.(2016),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Politics: Linking Humanity and Nature",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42.

Florey, K.(2021), "Toward Tribal Regulatory Sovereignt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Arizona Law Review』, 63(2): 399-438.

Fukuda-Parr, S. & C. Messineo(2012), "Human Secur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Research on Peace and Development (CRPD) Working Paper』, 11: 1-19.

Gilpin, R.(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ilpin, R.(1988), "The Theory of Hegemonic Wa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8(4): 591-613, <https://doi.org/10.2307/204816>.

Gómez, O. A.(202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Under the COVID-19 Pandemic", 『Global Pandemic and Human Security』, 165-182, Springer: Singapore. <https://doi.org/10.1007/978-981-16-5074-1_9>.

Grieco, J. M.(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485-507, <doi: 10.1017/S0020818300027715>.

Hardt, J. N.(2021), "Encounters between Security and Earth System Sciences: Planetary Boundaries and Hothouse Earth",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nthropocene』, 39-57, <https://doi.org/10.1007/978-3-030-53014-3_3>.

Harrington, J.(2021), "Indicators, security and sovereignty during COVID-19 in the

www.kci.go.kr

Global S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17(2): 249-260, <doi: 10.1017/S1744552321000318>.

Hough, P., Moran, A., Pilbeam, B., & W. Stokes(2015),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Hufbauer, G. C., Berliner, D. T., & K. A. Elliott(1986), 『Trade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Kaldor, M.(2007), 『Human security』, London: Polity.

Katzenstein, P. J., Wendt, A., & R. L. Jepperson(1996),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33-75.

Keohane, R.(1994), "Hobbes's Dilemma and Institutional Change in World Politics: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Society", 『Whose World Order? 』, 63-87, London: Routledge.

Kurki, M.(2020),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lational Unive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cEwan, C.(2021), "Decolonizing the Anthropocene", In Chandler, D., Müller, F., & D. Rothe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nthropocene』, 77-94, <https://doi.org/10.1007/978-3-030-53014-3_5>.

Morgenthau, H.(1948),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ova York: Alfred Kopf.

Nye, J. S.(1988),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ics』, 40(2): 235-251, <https://doi.org/10.2307/2010363>.

Pereira, J. C.(2021), "Towards a Politics for the Earth: Rethinking IR in the Anthropocene", In Chandler, D., Müller, F., & D. Rothe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nthropocene』, 21-37, <https://doi.org/10.1007/978-3-030-53014-3_2>.

Suganami, H.(2002), "The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reconsider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1): 1-28, <https://doi.org/10.1093/irap/2.1.1>.

Simangan, D.(2019), "Situating the Asia Pacific in the age of the Anthropocene",

www.kci.go.k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3(6): 564-584, <https://doi.org/10.1080/10357718.2019.1657794>.

Simangan, D.(2021), "Disrupting the Universality of the Anthropocene with Perspectives from the Asia Pacific",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nthropocene』, 271-290, <https://doi.org/10.1007/978-3-030-53014-3_15>.

Waltz, K.(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ow-Hill.

Wendt, A.(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ght, M.(1977), 『Systems of State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www.kci.go.kr